



—가정 복지를 위한 가족구성원의 역할—

# 父母의 役割

南 世 鎭 (서울대 사회대 교수)

I

家庭福祉와 이를 위한 父母의 役割을 알아 보기에 앞서 밝혀 두어야 할 것은 家族에 對한 概念과 意味라 생각된다. 모든 종류의 定義가 다 그러하듯이 어느 局面을 강조하느냐 또는 어떤 見地에서 보느냐에 따라 내용과 표현이 다소 다르기 마련이다. 家族에 대한 정의도 例外가 아니어서 많은 종류가 있겠으나 그 가운데 이 글에서 밝히려는 내용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를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은 단순한 개인들의 집합체는 아니다. 그것은 眞實된 小集團이며 生命과 構造와 그 自體의 規制를 갖는 한 力動的인 實體이다. 家族內部에서 어느 한 成員의 活動은 다른 모든 成員들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어떤 反應이나 反作用을 일으키며 또한 家族의 均衡에 變化를 가져오게 한다. ……家族成員 相互間에는 서로 관련되는 役割이 內在되어 있어야 하며 萬一 그렇지 못할 때에는 가족의 어느 한 成員이나 그 이상의 成員의 性格이 잘못되기 쉽다.” 이 정의에 따르면 가족은 하나의 體制—system—이며 이 속에서의 個人의 社會心理的인 統合體的 성격은 同時에 가족집단과 個人間에 존재하는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家族이란 서로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 많은 이해력과 도움의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血緣關係 또는 가족생활을 함께 함으로서 가족성원간에 相互關係를 가질 때 비로소 存在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족의 기능적인 면 특히 가족성원간의 反應面을 강조하고 있어서 가족문제의 발생을 원만한 기능과 적응에 연결시키고 있다.

“가족이란 여러점에서 진화의 產物이다. 가족은 안팎에서 받는 각종의 영향에 미묘하게 적응하는 응동적인 한 단위이다. ……외적인 관계에서는 가족은 벌려 행해지고 있는 관습이나 풍습에 적응해야 하며 민족적, 종교적, 사회적 및 경제적인 여러 힘과의 실질적인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內的인 관계에 있어서는 부부간 또는 母子間의 기본적인 생물학적 관계 결합도 잘 유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即 생물학적으로 가족은 種을 유지할 기능을 갖고 있으며 心理學的으로는 愛情的 欲求를 充足하기 爲한 상호의존적 기능을, 경제적으로는 물질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기능을, 그리고 社會文化的으로는 社會의 道덕이나 관습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기능면을 가족의 개념에 반영하고 있다.

“가족은 사회의 기본단위이다. 가족에서 개인은 그의 개인적 만족을 大部分 얻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는, 아동의 퍼스내리티가 형성된다. 가족속에서 性關係가 규정되고 아동은 양육과 교육을 받고, 구성원에게 의식주가 제공된다. 병이 났을 때 가족은 간호를 하며 가족구

성원의 따뜻한 애정의 보금자리가 된다. 현대 산업사회의 사회변화가 어떠하더라도 가족생활은 個人에게 있어서 다른 어디에서도 발견 못하는 가치를 지닌다. ……때문에 가족생활은 보호되고 강화 되어야 한다.” 이 개념은 가족의 기능과 의미를 강조함과 同時에 가족구성원의 역할을 암시하고 있다.

要컨대, 가족은 하나의 體制이며 그속에서 구성원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기능과 역할의 면에서 능력이 중요시된다고 하겠다.

가족의 개념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규정된다면 가정복지의 개념을 갖기란 매우 쉬운 일이다. 즉, 가족이 충실한 體制와 ‘원만하게 밀접한 상호관계’ 그리고 ‘단쪽스런 기능과 역할’을 유지 수행한다면 이것이 곧 ‘가정복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이 너무 막연한 것이라 한다면 이를 광의의 가정복지라 규정하고 ‘행복한 가정’ ‘단란한 가정’ ‘스위트 홈’ 등을 협의의 개념으로 만들 수도 있을것 같다. 어떤 의미에 선 후자의 개념이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칫 잘못되면 가정내의 상황만을 고려하게 되기 때문에 이 개념을 선택함에 주의를 해야 한다. 예를들면 사회와 단절된 상태에 있거나 사회적으로 보아 전전하지 못하거나 또는 바람직 못한 경향으로 방향지워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복지상태의 가정’ ‘가정복지’ 일수는 없는 것이다.

가정복지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주로 부모와 자녀간의 관련에서 찾아보는 것이 타당할것 같다. 그렇게 하면 “가정복지”가 아닌 “아동복지”를 위한 부모의 역할이 되지 않느냐는 항의도 있겠으나 紙面의 制限도 있고 또한 자녀를 뺀 부모의 역할이란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가정을 위한’ 것이나 ‘자녀를 爲한’ 것이나 부모의 역할이란 면에서는 大同小異하다고 볼 수 있기도 해서 괜찮으리라 생각된다.

전형적이며 일반적인 父母의 역할을 父母子女機能이란 면에 국한시켜 살펴 보겠으며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의 특수한 역할을 찾아

보려고 한다. 끝부분에서 사회변화에 따른 역할의 혼란을 생각해 보면서 이에 관한 몇가지提言을 하려고 한다.

## II

家庭福祉를 爲한 父母의 役割 가운데 가장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것은 A. 폴락(Pollak)氏의 父母子女關係의 機能에 맞추어 생각해 본다면 가장 적절할것 같다. 氏의 분류개념 속에는 가족기능도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問題를 의식한 分類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인한다면 가족진단을 위한 지침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능에 따른 역할수행상의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보다 分明하고 具體的이라 할 수 있다. 그는 9個에 걸친 기능을 분류 나열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부모의 역할과 관련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1. “父母는 肉體的, 精神的, 養育을 통해서 자녀들의 성숙을 촉진케 한다.” 이를 爲해 경제적 물질적 수단을 제공하며 사랑과 애정으로 정서적 정신적 안정과 만족을 제공한다. 자녀들의 건전한 성장은 물질과 사랑이 균형있게 주어지므로 가능하다. 극심한 가난 때문에 자녀를 돌볼 겨를이 없다는가 돈만을 버는데 열중하여 필요한 애정을 주지 못하면 균형이 없게 되어 올바른 역할이 수행되지 않는다. 또한 한쪽에 치우친 과잉보호도 문제가 되며 지속성과 계속성이 부족한 양육도 문제가 된다.

2. “父母들은 또한 身體를 支配할 技能을 發展케 하도록 자녀를 도운다.” 손, 팔, 다리, 몸통등 신체적 부분을 조화 있게 그리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성장기의 자녀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 공작, 장난감운동, 소꿉장난, 놀이 등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특히 어릴때의 다양하고 풍부한 놀이는 매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부모의 직접간접적인 지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社會化 過程中에서 基本的인 相互個人的關係를 發展하도록 子女를 돕는다.” 무엇보다

## 지면보수교육

가족내에서 父母와의 關係와 兄弟姉妹와의 關係의 발전이 중요하다. 유교적 전통이 강한 가정에서 가정의 권위만을 내세운다든가, 가족서열을 엄하게 지킨다든가 하는 사실은 자칫 이러한 個人的 關係의 원만한 발전을 해칠 수가 있다. 큰아들의 편을 든다거나, 아들의 편만을 드는 父母의 태도는 균등한 개인적 關係를 발전시킴에 필요한 경험과 능력을 저해할 수도 있다.

4. “子女에 對해 性的인 同一視를 爲한 발판을 마련해 준다.” 父는 아들에게 母는 딸에게 가치관, 태도, 행동, 사고방식, 몸가짐 등에 있어서 男性으로서 그리고 女性으로서 同一視의 對象이 된다. 이러한 역할이 실패하게 되면 子女에게는 실망과 불만이 함께 나타나서 바람직한 남성 또는 여성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反抗的 結果를 초래할 수도 있다.

5. “性的 倒錯을 막는다.” 딸은 男性이 아닌 女性으로서 아들은 女性이 아닌 男性으로서 건전한 異性觀을 가지게 하며 正常的인 성장과 행동을 하게 한다. 父는 아들에게 남성임을 그리고 母는 딸에게 女性임을 인식시키고 확인시키며 일상생활을 통해 원만한 부부로서의 시범을 보이므로서 출선수범적 교육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6. “超自我形成의 기틀을 마련해 준다.” 윤리 도덕 그리고 양심은 父母의 기준에 따름으로서 형성되는 것이다. 日常生活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가치기준이, 그리고 父母의 人倫, 도덕, 준법에 대한 가르침이 곧 자녀의 초자아가 되는 것이다. 특히 父母의 가치판단적 행동은 어떤 의미에선 의식적인 교육보다 강한 영향을 준다고 한다. 父母의 일관성 있는 감동과 징계는 자녀로 하여금 전진하고 바람직한 윤리와 도덕 그리고 양심을 가지게 한다.

7. “自我機能의 發達을 도운다.” 自我의 機能은 本能的 衝動과 超自我의 요구 그리고 현실적 여건을 통합하여 적절한 판단과 행동을 지시하는 것이다. 이 기능은 父母의 시범과 더불어 教育을 통하여 학습하게 된다. 父母로서 子女에

대한 원시적 사랑밖에, 어떻게 교육하는가를 모르게 되면, 충분한 자아기능 발달을 위한 가정 교육을 주지 못하게 된다. 社會生活과 社會的 機能을 수행해 나감에 가장 필요한 理性的 行動能力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전술한 초자아의 발전은 父母의 사랑을 ‘주고 빼앗고, 하는 기체로서 변용력을 키워 줄 수 있다면 자아기능의 발전은 분명한 내용과 일관성을 가진 시범과 교육으로서 가능한 것이다.

8. “가족 밖에서 노는 일이나, 건강을 위한 자원은 물론 교육자원 등에 접할 수 있도록 조정하거나 규제하는 일들을 살펴 본다” 子女들은 가정 밖에서 얻어야 할 경험과 가정 밖에 있는 자원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을 적절히 파악하고 기회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부모가 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바람직 하지 못한 경험과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때에는 적당한 규제가 필요하며 조정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 태도와 판단이 있어야 하며 일방적 사고방식이나 보호는 올바른 역할 수행에 방해가 된다.

9. “청년기에 들어 가면서 가정에서 분리해 나감을 격려해 주거나 모험을 할 경우 정서적인 긴장에 지쳐서 부모에게 일시적으로 의존할 때 피난소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새로운 경험을 必要로 할 때에는 독립심과 더불어 이를 장려해야 하고 또한 의존심의 충족을 必要로 할 때에는 지나치지 않을 만큼 이를 받아 들여주는 것이 부모로서의 적절한 행동이다.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나 극성스런 태도는 자녀의 독립심과 모험심을 충족시킴에 장애가 되며 의존심과 소극적 태도를 발전시키게 된다.

이와 같은 폴락크의 기능과 이에 따른 부모의 역할을 다시 요약 해 본다면 사랑, 애정, 독립 경험기회, 그리고 물질과 경제를 제공하는 역할, 시범과 동일시의 대상이 되는 역할, 잘잘못을 판단하고 행동을 규제하는 역할, 인간관계 형성가족의에서의 경험등을 격려하는 촉진자로서의 역할, 가르치고 전달하는 교육자의 역할,

등으로 구분되어 진다.

이러한 역할에 한가지만 더 첨가한다면 가족 결속을 위한 역할이라 하겠다. 가족의 정신적 구심력을 찾고 유지하며 단순한 서식처로서의 가정이 아니라 화목하고 사랑이 충만한 보금자리로서의 가정을 꾸미는 데 주동적인 역할을 부모가 한다는 것이다. 가정복지나 아동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족성원들간의 가족을 중심으로한 응집력이라고 하며 이를 위한 부모의 역할을 관심의 초점으로 잡고 있다. 특히 사회와 문화의 급변으로 인한 부모와子女간의 “世代的 격차” “단절” 등의 현상은 가정결속의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어서 점차적으로 가정복지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비한 부모의 새로운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부모 어느 한쪽이 없거나 있어도 주어진 기대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상황에 있는 경우 다른 한쪽이 兩者의 역할을 同時에 수행해야 한다. 이때 새로이 주어지는 또하나의 역할이 벽차게 되므로써 문제가 발생하여 가정복지에 파란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부모가 아닌子女 가운데서 이 역할을 代身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가족외의 친척 가운데서도 이를 담당하는 수도 있다. 다만 문제는 남아 있는 한쪽의 부모가 代身하는 역할 담당자를 얼마나 잘 도와주는가 하는 것이며 이것 또한 어려운 역할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一般的으로 가족구성상에 문제가 발생하면 역할기대가 再 편성되고 재분배되어 가정은 다시 安定을 찾으려는 경향을 가진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적 경향도 그 뒤에는 父 또는 母의 노력이 숨겨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 물론 父 또는 母 外의 가족구성원의 노력도 이때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時代가 變하고 사회환경이 變함에 따라 부모에 대한子女의 기대, 子女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달라진다. 變化自體는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복지적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변화가 相互의 기대에 어긋나거나 빗나가게 되므로써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지나친 父母의 기대 때문에 항상 부모와 가정이 원망스러운 존재로 보이고 결국 父母에의 반항 그리고 사회에의 반항으로 출달을 치는子女가 얼마든지 있으며 동시에 父母는 배반당한 듯한 슬픔에 통분해 하는 것이다. 父母가 관대하고 분별력 있는 태도로 자녀를 대하며 對話의 상대인 친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이러한 상황에 까지 발전되지는 않을 것이다.

### III

가정복지를 위한 父母의 역할에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것이 있긴 하지만 이를 수행해 나가는데 필요한 具體的 行動樣式은 社會마다 家族마다 그리고 당사자마다 相異하기 마련이다. 문제는 어떻게 父母가 자기의 역할을 찾고 수행해 나가며 얼마나 잘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특히 어린 자녀는 父母에 자기가 기대하는 역할에 대해 표현하지도 못한다. 어디서 누구에게서 父母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수행하는 것인지를 배우고 익힐 것인가? 大部分 父母의 父母로 부터 듣고 보고 배우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부모의 역할은 다음 世代에 까지 가정복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父母에게서 배운 역할이 그대로 통용이 되면 문제가 별로 없겠으나 급변하는 요즘 사회에서는 그렇지 못해서 문제가 된다. 父의 권위적 역할, 母의 지배적 역할이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서 통하고 있던 말인가? 그렇다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단 말인가? 민주적 역할? 그것은 어떤것이고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가? 大學에서 배우나? 父母의 지나친 권위주의적 역할에 지친 다음 세대의 父母가 자기는子女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 굳게 마음먹고 무엇이든子女 위주로 대하고子女의 요구대로 행동 한다면 이것이子女의 成長에 그리고 가정복지에 바람직한 것인가? 요즘 父母의子女에 대한 과잉보호는 이들에게 책임감 갖지 않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 있진 않은가? “요즘 처럼 父母노릇

지면보수교육

해먹기가 어려워져야……”하는 40代 50代의 父母에게 누가 바람직한 역할행동이나 方向을 제시해 줄 것인가? 외국—선진—애선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父母에게 그리고 父母가 될려는 사람들에게 이를 교육하고 있으며 문제가 이미 발생한 가정을 위해서 전문사회사업가가 상담 내지 사회사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도 이제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버이 노릇 교육이 매우 필요한 상황에 있지 않은가?

요즘 우리의 가정은 지나치게 가족중심 또는 자녀중심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다. 내자식만을 알고 남의 자식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며 내가족만 알고 국가나 사회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가족중심이 아니라 자녀중심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 것 같다. 진정한 가정복지는 자녀중심이 아니라 가족중심이 되어야 이루어 질 수 있으며 국가와 사회를 의식한 가족중심이 진정한 것이고 내자식도 남의 자식과 더불어 생활하고 성장하며 이들의 상호작용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안다면 남의 자식도 내자식에 대한 관심범주속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父母의 역할 밑에 깔려 있는 중요한 요인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 없이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역할에 대해 아무리 잘 알고 있는 부모라 할지라도 이러한 요인 없이는 역할수행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역할이란 기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사랑과 관심이 없는 父母에게 子女가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이며 형식적이고 외양적인 것은 아무런 효과를 나타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사랑과 관심, 필요하고 바람직한 사랑과 관심은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서 교환되며 子女에 대한 이해적 태도에서 나타난다. 얼마나 많은 父母들이 이러한 사랑과 관심의 대가로 불질적인 보상을 하고 그래서 올바른 자녀의 성장을 해치고 있는지 요즘의 사회상과 비행청소년의 분석에서 밝혀지고 있다. 사회학자들에 의하면 장차의 가족기능은 정신적 문화적인 것이 강화될 것이며 다른 모든 기능은 사회에 귀속하게 될것이라 한다. 그렇다면 미래의 가정복지는 父母가 얼마나 정신적 문화적인 면에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인가에 달려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

이 달의 수중간행물

「간호학회지」 제18권 2호(78.12월호) 대한간호학회.  
 「과학과 기술」 제12권 5호(5월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녹십자의 보」 제7권 2호(3, 4월호) Korea Green Cross Corporation  
 「논문집」 제5집, 1978, 청주간호전문대학  
 「대한병원협회지」 제8권 5호(5, 6월호)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제3호(3월호)  
 「동아의보」 통권 118호(6월호) 동아제약(주)  
 「미국정재 및 배경 시리즈」 제3호(5월호) 미국대사관 국제교류처  
 「보건세계」 제26권 4호(4월호) 월간보건세계  
 「우리와 아동」(여름호) 한국아동복지회  
 월간 간호」 통권 27호(6월호) 월간간호사  
 「의료보험」 통권 11호(5월호) 건국의료보험협회  
 「인간과학」 제3권 4호(4월호) 성심중앙유지재단  
 「전주간호」 제14호 전주간호전문대학 학도호국단  
 「제1회 전국위크샵 보고서 연구방법론」 연세대간호학연구소

「看護技術」 제25권 8호(6월호) 日本 Horizons USA 33  
 ICN. Vol 26. No. 2 (3, 4월호)  
 Nursing, 1st series(4월호) Nursing Subscription Department  
 Nursing 79 (4월호)  
 Nursing Québec. Vol 4. No. 2 (4월호)  
 Nursing Research (78. 11, 12월호)  
 Population Reports 79. 3월  
 Sairaanhaitaja, 7-3.4. 1979 FINLAND  
 Salubritas Vol.3 No. 1(1월호)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The Australian Nurses Journal. Vol. 8 No. 9 (4월호)  
 The Canadian Nurse (5월호)  
 Traditional Birth Attendants, No. 44 1979. WHO Offset Publication  
 UNDP, 78.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in 1978  
 World Health(2, 3월호) WHO